

# Cognis, 한국을 아시아 중심으로...

## 2004년 국내 현지법인으로 출발 ... 화장품 · 코팅사업 성장잠재력 기대

Cognis Korea(코그니스 코리아)가 2004년 1월1일부터 한국 현지법인으로 새 출발하며 국내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Cognis Korea는 1999년 말부터 2003년까지 Henkel Korea를 독점 대리점으로 하는 간접적인 형태의 사업을 해왔으나 2004년부터 Henkel Korea에서 대행했던 모든 Chemical Division을 직접 관리하며 국내사업에 나섰다.

Cognis Korea는 현재 Care Chemicals, Nutrition & Health, Functional Products, Process Chemicals, Oleo Chemicals의 5개 전략 사업단으로 구성돼 화장품, 세제, 페인트, 윤활유, 플라스틱,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분야에서 약 500여개의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2004년 약 15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Cognis Group은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과거 10년 동안 중국, 한국, 타이,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주요 성장거점으로 지정하고 많은 투자를 해왔다. 특히, Cognis Korea는 Specialty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한국을 아시아 지역의 중심 거점으로 키우려는 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도쿄의 Care Chemicals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도 한국으로 이전했다.



김영률 Cognis Korea 대표이사 사장  
▷연세대학교 · 대학원 화학과 졸업 ▷한국 화학연구원 ▷Henkel 및 Cognis Group 15년 근무 ▷현 Care Chemicals Asia-Pacific의 Regional Business Director

Cognis에서 4년째 아시아·태평양 Care Chemicals Regional Business Director를 맡고 있는 김영률 대표이사는 “Cognis Korea의 설립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데 따른 것이며, <Wellness>와 <Sustainability>라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초점을 두고 맞춤형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시장에 대해 “화장품을 포함한 개인용품 및 생활용품 시장은 수입제품의 시장 참여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페인트를 포함한 Coating 시장 부분도 친환경 특성의 부각과 함께 계속된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PVC류의 플라스틱이나 섬유산업은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인 매출 확대 및 신사업 개척과 관련해서는 기술 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과 양질의 Solution 제공을 통해 매년 2자리수의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활용 가능한 기술과 관련 노하우를 전략적 제휴나 기업 인수를 통해 글로벌 상품화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Cognis는 독일 뒤셀도르프에 본사를 둔 다국적 Specialty Chemical Company로 현재 50개국 약 85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Permira, GS Capital Partners & Schroder Ventures Life Sciences가 최대 주주로 있는 Cognis는 2003년 매출액 30억유로, EBITDA 3억1200만유로를 기록했으며 아시아·태평양 매출이 12%를 차지했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6/14>